

DDA, 2006년 4월 협상 동향

임 소 영*

WTO 회원국들은 2005년 말 홍콩 각료회의에서 모델리티 합의안 도출 시한을 2006년 4월 말로 정하였으나 정해진 기한 내에 모델리티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은 무산되었다. 4월 말 모델리티 협상 시한이 지켜지지 않음에 따라 일부에서는 7월 말을 새로운 기한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회원국들은 구체적인 시한을 정하지 않은 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모델리티를 도출하기로 하였다.

1. 주요국 동향

1.1. G-6 논의 동향

미국, EU, 브라질, 인도, 호주, 일본 등 주요 6개국의 고위급 회의가 4월 20일에 제네바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국내보조 감축 시뮬레이션, 민감품목 제안서, 4월 말 모델리티 도출 실패에 따른 앞으로의 일정 수립 등 크게 세 주제를 놓고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감품목 관련 논의에서는 EU, G-10 그리고 최근에 제시된 미국의 제안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lsyjr@krei.re.kr 02-3299-4250

가 거론되었다. 미국은 최근 민감품목의 대우에 대해 새로운 제안을 내어 놓았다. 미국의 제안에 따르면 관세의 경우 쿼터 내 세율은 철폐하고, 쿼터 밖 세율의 관세 감축폭은 일반 관세 감축폭의 50%로 해야 한다. TRQ는 일단 국내 소비량의 3%를 증량한 다음 추가적으로 증량해야 하는데, 국내 소비량 대비 현행 TRQ 물량의 비율을 바탕으로 추가 증량폭을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미국의 제안은 다른 회원국들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과 EU사이에는 입장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1.2. 미국 무역대표 교체

4월 18일 미국의 무역대표 포트먼은 백악관의 예산국장으로 임명되면서 무역대표가 전 부대표인 수잔 슈왓으로 교체되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각 국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파스칼 라미 사무총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포트먼 무역대표가 DDA 협상에 기여하였다며 공헌을 치하 하였으나 EU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중요한 시점에 협상 대표를 교체하는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2. WTO 농업위원회 4월 회의

농업위원회 4월 회의가 시작될 때 농업위 특별회의 팰코너 의장은 회원국들에게 이번 농업주간 회의가 “다자 협상”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번 주에 열리는 회의는 전체 회원국들을 참석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시장 접근, 국내보조, 수출경쟁 등 농업협상의 세 분야를 모두 논의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화요일에 열린 비공식 전체회의는 팰코너 의장이 제시한 식량원조 문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다음 날 아침에는 수출국영기업(STE)에 대한 의장 문서를 바탕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금요일 비공식 전체회의에서는 회원국

들이 블루박스과 그린박스에 대한 의장 문서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한편 가
공도별 관세 격차 문제와 개도국의 특혜 문제, 관세 단순화 등의 의제에 대해
서는 소규모 회의가 열렸으나 심도 있게 논의되지는 않았다.

2.1. 의제별 논의 내용

2.1.1. 식량원조

18일에 열린 비공식 전체회의에서는 식량원조에 대해 모든 회원국들이 참
여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 팔코너 의장은 식량원조 관련 일부 쟁점, 긴급 식
량원조(Safety Box)에 대해서는 회원국들 사이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지만 비긴급 식량원조와 관련된 두 의제, 식량원조의 현금화와 현금 형
태의 무상원조 여부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고 정리하였
다.

2.1.2. 블루박스

블루박스에 대해서는 상한을 생산액의 2.5%로 축소하는 것 뿐만 아니라 추
가적으로 규율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회원국들과 그렇지 않은 회원국들
간 대립이 계속되었다. G-20은 블루박스가 무역왜곡보조 보다 무역왜곡효과가
적다는 것을 확실히 하도록 추가적인 규율을 마련해야 하며 특정 품목에 블루
박스 보조가 집중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G-20은 2.5% 상한이 이행 초기부터 적용되어 이행 말에는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감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 대해서는 G-20 뿐만 아니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국 그룹 G-10은 블루박스의 상한을 농업 총생산액의 5%에서 2.5%로 감
축하는 것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양보를 한 것이며 2.5%의 상한은 이행 초기부
터가 아닌 이행 말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블루박스에 추
가적인 규율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였는데, 기본골격에서 제시된 기존 블루

박스과 신규 블루박스가 특정 품목에 집중되어서는 안된다며 품목별 상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EU는 블루박스가 몇몇 품목에 집중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나 미국은 현재까지 제시된 내용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추가 규율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펠코너 의장은 블루박스에 대한 의장 문서가 협상의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다며 앞으로 동 문서를 더욱 다듬겠다고 언급하였다.

2.1.3. 그린박스

그린박스 관련 논의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은 그린박스 관련 규정인 농업협정문 부속서 2의 6항에 관한 내용이다. 농업협정문 부속서 2의 6항은 생산비연계 소득 보조에 관한 내용으로 G-20과 캐나다, 호주 등은 동 항목이 실질적으로 무역을 왜곡하지 않거나 그렇더라도 왜곡효과가 최소한이기 위해서는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자 미국은 그린박스 관련 규정의 개정안을 내어 놓았으나 6항에 대해서는 수정하지 않고 있으며 EU는 현행 그린박스 규정이 수정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회원국들은 직불금의 “고정되고 변치 않는 기준 기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축성을 보이고 있다. 일부 회원국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생산량이 변하더라도 그에 따른 직불금의 변동을 막기 위해서는 기준 기간을 고정시켜 바꿀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스위스는 최근의 생산 동향을 고려하여 직불금을 조정할 수 없도록 기준기간을 고정시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반박하였다.

2.2. 협상 진행방식 변경

의제별로 회원국들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펠코너 의장은 새로운 협상 진행

방식을 내어 놓았다. 펠코너 의장은 5월 6일부터 6주 동안 3주기로 회의를 개최하는데, 첫째 주는 각 의제에 관한 비공식 회의를 갖고, 둘째 주는 전 주에 이루어진 회의보다 형식을 갖춘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매 주가 끝나갈 때에는 논의 내용과 진전 상황을 평가할 회의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새로운 협상 방식에 대해 회원국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으며 앞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협상이 이루어져 7월 말 이전에 모델리티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펠코너 의장은 새로운 협상 방식이 각국이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보다 효율적인 일정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각국의 각료들이나 협상 대표들은 첫 번째 주에는 필요한 경우 귀국하여 본국으로부터 협상 지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두 번째 주에는 내려진 지침을 바탕으로 회의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펠코너 의장의 생각이다. 또한 각 주기가 시작되는 첫 주에는 협상 진행 방식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견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회원국들은 새로운 협상 시한을 설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7월 말이 협상 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일부 회원국들은 7월 말 이전에 모델리티 합의문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 회의는 4월 26일부터 28일 까지 열린다. 이 때에는 개도국 특별수입제한조치(SSM)와 특별품목(SP)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문서에 기초한 회의가 이루어질 것이며, 회의에서 제시되었던 문서들이 모여 모델리티 초안이 만들어지면 더욱 투명한 협상이 될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결국에는 회의를 거듭함에 따라 초안이 다듬어지면서 모델리티 최종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회원국들은 일부 쟁점에 대해서만 모델리티를 만드는데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펠코너 의장이 회원국들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